

# 인생의 고비마다 떠오르는 스승이 들려준 삶의 지혜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  
데이비드 웨이더먼 엮음 | 안명희 옮김  
1만원 | 세종서적

## 하버드 경영대 교수 15인이 마지막 수업시간에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

하버드 졸업생들은 마지막 수업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인생의 고비마다 불현듯 떠오르는 스승의 주옥같은 마지막 말들이 삶의 큰 지혜가 돼주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스승은 거친 세상의 파도 앞에 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었던 것일까? 왜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버드 경영대 교수 15인이 미래의 CEO에게 주는 삶의 교훈들을 한데 엮었다. 제목은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이다. "그대, 미래의 리더들이여! 당신이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지 마시오."

로자베스 모스 캔더, 킴 클라크, 낸시 코엔, 토머스 드롱, 스티븐 카우프만 ... 등. 듣는 것 만으로도 입을 다물 수 없는 하버드 경영대의 빛나는 교수들이다.



하버드대 졸업식 모습. 하버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교수의 자질이 아닌 학생들의 신념에 달려 있다.

교수들이 들려놓는 이야기는 모두 다르다. 각각의 교훈을 역시 교수들의 성격만큼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교수일지라도 빼놓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수업에서 말한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처럼 이 책은 양심과 정직의 가치에서 아주 작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준다.

제프리 F 레이포트 교수는 자신의 하버드 경영대 재학시절의 경험을 한토막 들려준다. 그는 2학년 2학기때 경영학과는 무관한 '동물학' 강의를 신청해 들었는데, 기말고사때 일이 터지고 말았다. 박제된 새를 삼배 주머니로 뒤집어 씌운 카트를 시험장에 갖다 놓고는 이 새의 특징과 이동패턴, 식생활, 짝짓기 습관, 의 사소통 방법을 추론하라는 게 시험 문제였다. 보이는 건 박제된 새의 외양만 두 발뿐. 여기 저기서 활달하게 생각한 학생들의 불멘소리가 터졌다. 그 중 1명은 "이 황당한 시험문제를 받아들이 수 없다"며 조교와 대판 싸운 뒤 시험장을 나가버렸다.

레이포트 교수는 살아가면서 이 시험문제에 숨겨진 메시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인생이나 비즈니스에는 바로 불확실한 것이 많다는 사실이다. 극도의 불확실성과 긴박한 상황 변화 속에서 진로를 계획하는 일은 거의 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박제된 새를 놓고 논술시험을 치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그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데이비드 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5년 후 여러분은 졸업 5주년 동창회 초청장을 받을 것이다. 결코 참석해선 안 된다. 10년 후, 15년 후도 마찬가지다. 그 곳에 간 순간 여러분은, 친구들을 보기도 전에 그들이 타고 온 차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것이며, 콧대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미국 하버드대. 하버드경영대 교수들은 마지막 수업시간에 명문대라는 자부심 대신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졸업생들에게 전한다.

일 잔을 마주치며 이미 CEO에 오른 친구의 자랑을 듣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자신이 설계한, 자신이 고자 한 삶을 잊은 채, 화려해 보이는 다른 행로를 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순간 불행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이 자이쿠마르 교수는 명사가 '오소 라즈니쉬' 못지않다. 등산을 즐기는 그는 40년 전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다 발을 헛디뎠다 사고를 당했다. 울퉁불퉁한 경사면을 따라 약 2.4km 정도의 거리를 미끄러져 내려왔다. 온 몸은 찢겼고 엉덩이뼈는 산산조각났다. 가까스로 그는 산간 마을 한 여인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응급처치를 마친 그 여인은 그를 등에 업고 3일간 계속해 병원이 있는 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여인의 관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 그의 새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행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살아오면서 소유하고 누린 크고 작은 것 모두가 행운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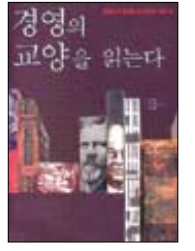
"산을 오르는 열정은 나를 어느 특별한 봉우리로 오르도록 이끌어주었지만, 추락은 내가 보다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에게 긴장을 늦추라고 강조한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긴장을 늦추고, 부디 주어진 삶을 즐기고 축하하기 바란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 현실적인 스승이나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났으므로 내게 얼마나 커다란 '행운'이 찾아왔는지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이 책을 덮고나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 마지막 수업을 듣고 난 느낌이 든다. 그곳에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고, 올바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인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해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박기찬 · 이윤철 · 이동현 지음  
더난출판 펴냄 | 3만5천원



경영 100년사를 주도해 온 명저 30여 권을 엄선하여 소개한 책이다. 단순히 고전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고전 속에 숨어 있는 진리와 지혜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를 제공해준다. 특히 고전적 이론과 개념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어렵고 딱딱한 지식이 아닌, 말랑말랑한 교양으로서의 경영 지식을 전달해 준다.

이 책은 국내 경영학자들이 경영서의 고전으로 불리는 30권을 선정, 핵심 아이디어와 구성, 주요내용, 현대적 시사점, 저자소개 및 도서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기업이 태동하고 발전했던 1910~1960년대, 치열한 경쟁과 경영효율화가 목표였던 1970~1980년대, 백가쟁명식 경영이론이 나왔던 1990~2000년대로 나누어 각 시기의 고전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이 시기를 각각 경영의 시대, 경영의 전략을 발견한 시기, 경영의 르네상스로 지칭했다.

그런데 저자들은 경영고전들이 가장 현대적 이론서들과 일맥상통함을 발견한다. 가령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레더릭 테

## 고전으로 본 경영 100년사

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주장하는 구체적 경영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이다. '과업관리' '하루의 공정한 작업량' '차별 성과급제' 등. 현대에서 논의되는 연봉, 성과급제란 개념은 테일러의 이론에 좀더 다양한 양식만 덧붙였을 뿐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의 목적을 테일러는 '노사간의 최대 번영과 함께 종업원의 최대번영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와 100여년의 시차를 뛰어넘어 상당부분 일치하는 셈이다.

제1부는 191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초기 경영의 시대로, 경영의 가장 본질적인 의문점들을 해결해주는 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석유과동등을 기점으로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경영의 화두로 등장하며, 경영에 관련된 주제들이 주요 관심사로 다뤄진다.

이전의 책들이 주로 기업 차원의 경쟁력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제3부인 1990년대 이후의 책들은 기업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나아가 다른 사회 영역에 접목될 수 있는 논의들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과 그 산물들을 통해 경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했으며, 현재는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독자들 역시 경영서적에 대해 막연한 지식의 수집보다는 지식을 소화하는 양식을 개발하라고 권고한다. 실용도서 한두권의 지식에 의존하기 보다 실용도서가 출간된 배경, 경영의 고전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책은 학생에게는 정독, 시간이 부족한 회사원 등은 키워드 중심, 경영분야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집단은 책의 구성을 반대로 읽어 현대적 베스트셀러 경영서적의 핵심을 파악하는 독서법까지 알려준다.

■김영민(한국미래경영연구소장)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정수 발효식품

**참꽃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 山寺 참꽃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 등 / 오장육부 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당뇨, 원기회복에 기여

기면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 회복 / 거름, 매운 작음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꽃조청**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꽃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웃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꽃조청**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술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금융사  
054-372-5721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꽃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삼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제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혀서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장과 법당에 늘 환이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사용처**      부처님전, 산신각, 탕화 등 기도로용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연꽃조      법당, 탑돌이, 방생 등 특이 아원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현불교예술팀      불교양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원료 불교 유품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 “불서보급 30년 전통” 동진기획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b>묘법연화경</b> • 금강아함장제본 • 케이시상입 • 값 35,000원	<b>금강경수첩</b> • 비닐수첩 • 값 2,500원	<b>예수재용품</b> • A 값1,200원 · B 값1,500원
<b>자비도량참법</b> • 양장제본 • 값 15,000원	<b>예불전수첩수첩</b> • 비닐수첩 • 값 2,500원	<b>영가전도다라니</b> • 값 1,200원
<b>성불합시다</b> • 양장제본 • 값 16,000원	<b>신판불자수첩</b> • 비닐수첩 • 값 3,000원	<b>영가 종이 옷</b> • 남(男) 값 2,000원 • 여(女) 값 2,000원
<b>동진기획</b> Since 1975	<b>불자신명첩</b> • 비닐수첩 • 값 3,000원	

부산지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 E L : (051)515-8888(대)  
F A X : (051)508-0101  
H · P : 011-554-2988

E-mail : tunhwang@yahoo.co.kr  
www.dongjin.biz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